

## 광주·전남 하늘길·뱃길 막히고...국립공원 탐방로도 통제

광주.무안공항 등 항로 통제...선박도 발 묶여  
무등산과 월출산·지리산 등 탐방로 통제해  
담장 무너지고 신호등 추락 등 피해 잇따라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하늘길과 뱃길에 대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11개 시군, 서해남부앞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했다.  
또 같은 시각 순천·여수·광양·강진·고흥·보성·여수·완도·장흥·진도·해남·신안 흑산도·홍도, 남해서부 앞바다, 서해남부 북쪽만바다의 태풍주의 보도 경보로 격상했다.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가 22일 오전 침수된 전남 구례군 광의면 한 주택에서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주택 인근 농수로에서 물이 넘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목포-제주, 완도-모사, 여수-거문 등 54개 항로 93척이 모두 통제됐다.  
하늘길도 통제되고 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여수공항에서 총 39편 항공기 운항이 태풍으로 결항됐다.  
광주공항의 경우 광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 등이 결항했고, 무안공항의 경우 무안에서 오사키와 후쿠오카,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이 결항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사키와 후쿠오카, 제주로 오는 항공도 현재 결항된 상태고, 세부와 방콕에서 무안으로 오는 항공기 2편이 지연 운행되기도 했다.  
국립공원도 통제 중이다. 무등산과 다도해해상, 월출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가 모두 통제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전날부터 비가 내렸고, 오늘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등 100~250mm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며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낙과 등 강풍 피해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10시50분쯤 목포시 석현동 한 교회 외벽의 벽돌 수백장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보행자 A씨(55·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교회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도 파손됐다.

한편 기상청은 6일 오후 3시부터 7일 오후 9시까지 전남 남해안에 시간당 100~200mm의 비가 내리고, 광주와 전남(남해안 제외)에는 50~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서해앞바다는 3~7m로 파고가 높게 일며 남해앞바다도 2~7m로 매우 높은 물결이 칠 것으로 보인다.

신봉우 기자

### 순천시, 2023년 두번째 정원박람회 유치 '심혈'

1호 국가정원 조성 10주년  
품격 제고·차별화 시도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시가 오는 2023년에 다시 한 번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6년 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순천시는 국가정원 1호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품격 제고와 차별화 등을 위해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다시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의 연향발 개발과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특화 성장동력 육성, 10년 주기 국가정원의 정기적인 리뉴얼 필요성 등도 두 번째 박람회를 추진한 배경이다.  
시에 따르면 두 번째 박람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는 이름으로 같은 해 4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연향발, 도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의 방향은 2013년 정원 조성과 붐 조성 이후 이어 이제는 일상 속으로 들어 온 정원문화를 통해 시민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주도의 기획과 실행, 공유를 특징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박람회 공간을 도시 전역으로 확대해 순천형 정원도시의 완성도와 체감형 경제활성화, 전 도시의 생태 정원화를 꿈꾸고 있다. 도시는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 박람회의 핵심 장소인 국가정원은 생태

경제교육존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은 생태 문화예술존, 순천만습지는 유네스코유산 존, 화포·와은 포구는 해양관광특구존으로 활용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박람회 개최여건 분석과 개최 필요성을 분석하고 박람회 개최 방향과 기획, 운영, 국제행사 승인, 국비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행사 유치개최 계획을 산림청에 제출하고 2020년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AIPH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가칭 '박람회추진TF팀'과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기획에서 운영, 실행까지 시민참여연락을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행사를 전담하게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 한전, 오는 27일 '학교법인 한전공대' 창립총회

초대 이사장에 김종갑 사장

한전이 27일 '학교법인 한전공대' 창립총회를 갖는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대학설립 작업이 본격화돼 오를 전망이다.  
한전은 전체 이사진의 동의를 거쳐 27일 서울에서 학교법인 한전공대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립총회는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 이사회 구성과 정관 등을 의결한다. 법인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개방이사, 교육이사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창립총회를 거쳐 한전은 곧바로 교육부에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하게 되면, 교육부는 3개월 내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올해 말 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법인 설립작업과 함께 한전은 그동안 역량이 있는 총장을 영입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한전공대는 '30년 내 세계 최고수준의 전력·에너지 특화대학'을 목표로 한다.  
대학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하게 되며 2022년 3월 개교한 뒤 단계별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학생 정원은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이고, 정원 외로 30%의 외국인 학생 3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교수 100명, 직원 100명이며 교수와 학생의 비중을 국내 최고수준인 1대10으로 유지하게 된다.

조인호 기자

문화관광육성축제
전라남도대표축제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

## 제19회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

2019. 9. 18.(수) ~ 9. 24.(화)

영광 불갑산 관광지 일원

**주요프로그램**

- 상사화 개막식 주제공연
- 상사화 미디어퍼포먼스 (미디어와 접목된 청소년 댄스 공연)

- 레드윈 EDM (7080 & k-pop)
- 상사화 꽃 피어올라 (상사화 창극)

주최/주관 :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영광군청, 영광읍사무소, 영광초등학교, 영광중학교, 영광고등학교, 영광문화재단

영광군의회      영광기동종합병원